



사진 오른쪽에서 셋째부터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이강덕 포항시장, 윤난숙 경북간호사회장.

장, 안혜정 포항시간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간호협회와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이재민 중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갑작스런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피해지역이 빠르게 복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협, 포항 지진 이재민 돕기 성금 전달

전국 간호사·간호대학생 십시일반 정성 모아

대한간호협회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311만2000원을 포항시에 12월 14일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윤난숙 경북간호사회장, 고순희 전 경북간호사회

이동의료원 간호사회, (주)비바리퍼블리카(가나다스) <개인>= 강성숙, 고명희, 고은미, 박월희, 박윤정, 박인자, 구정란, 금혜선, 김경애, 김근숙, 김금배, 김미선, 김미애, 김민수, 김민아, 김복순, 김옥수, 김용영, 김유정, 김의경, 김인자, 김정선, 김종희, 김태희, 김하나, 김현숙, 김혜숙, 김효선, 김희원, 남궁민, 노수진, 민지원, 박나래, 박노운, 박리정, 박미영, 박미화, 박미희, 박상숙, 박선하, 박연희, 박은화, 박준향, 박하나, 박효주, 백찬기,

서기숙, 석정순, 석하나, 신수정, 신화자, 안미나, 안영순, 안현수, 엄금옥, 연화경, 오명미, 오미정, 윤귀자, 윤봉남, 윤은자, 이미은, 이선미, 이승혜, 이영옥, 이영현, 이인숙, 이정현, 이지혜, 이정현, 전가을, 전상미, 전우석, 전현숙, 정규숙, 정금남, 정선아, 정영미, 정인영, 정정윤, 정지연, 조영숙, 조윤경, 조은자, 조현미, 지선자, 진다정, 차영미, 최영애, 최은리, 최인경, 최정자, 최연경, 한미정, 한정희, 함소정, 허수정, 허유강, 황보경, 황중훈(가나다스)

포항 지진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에 동참한 단체 및 개인은 다음과 같다.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부산시간호사회, 대구시 간호사회, 인천시간호사회, 대전 시간호사회, 울산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강원도간호사회, 충북간호사회, 충남간호사회, 전북간호사회, 전남간호사회, 경북간호사회, 경남간호사회, 제주도 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보훈시 시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 <단체>= 부산고려병원 간호부,

‘한양치매간호 R&D’ 발족

국가치매책임제 발맞춰 인간중심 돌봄 실천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발맞춰 치매간호 연구개발(R&D) 중심 협의체인 ‘한양치매간호 R&D’가 발족했다. 한양대는 ‘한양치매간호 R&D’ 발족을 선언하고 이를 기념하는 워크숍을 12월 16일 개최했다. 한양대 임상간호정보대학원·간호

과학연구소·간호교육원이 주최하고, 한양대 간호학부가 주관했다. 탁영란 한양대 임상간호정보대학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올해 9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에 발맞춰 한양대는

치매간호 R&D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치매국가책임제 하에서 인간중심 돌봄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실용중심 학풍에 근거한 사회의 힘이 되는 한양간호가 되기 위해 ‘한양치매간호 R&D’ 발족식을 갖고 5대 비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치매는 우리 사회의 핵심이슈이며, 한양치매간호 R&D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와 간호의 역할, 치매전문인력 양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매간호, 치매노인 간호의 로봇 이용 효과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치매 친화도시환경계획과 치매간호의 역할 및 일본사례연구, 치매가족 통합적 돌봄 중재프로그램 효과 등이 발표됐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스리나가리다상 수상자인 김옥수 연세대 간호대학 명예교수(앞줄 오른쪽)가 태국 로얄그랜드궁전에서 상을 받았다.

김옥수 연세대 명예교수 ‘스리나가리다상’ 수상

간호사들 인류 보건 위해 공헌해야

김옥수 연세대 간호대학 명예교수(전 대한간호협회장)가 ‘2017년 스리나가리다상’ 수상자로 선정돼 12월 11일 태국 로얄그랜드궁전에서 상을 받았다. 이 상은 태국 푸미폰 국왕의 모후인 스리나가리다 마히돌(Srinagarindra Mahidol) 여사가 왕족으로서, 간호사로서 국민의 안녕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이룩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스리나가리다재단에서 2000년에 제정했다. 전 세계 간호사 중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탁월한 업적을 쌓았고 간호교육·연구·실무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김옥수 명예교수는 “간호사로서 기쁘고 소외된 국민들을 직접 찾아내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삶을 바꾸는 진정한 간호의 역할을 보여준 스리나

가리다 여사를 기념하는 상을 수상하게 돼 국제보건을 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뜻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왕족으로서 안주하지 않고 소외되고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인간의 기본권인 건강과 복지를 찾아주려고 전 생애를 바친 스리나가리다 여사의 뜻을 지금 전 세계가 성취하고자 하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며 “우리 간호사들이 그 뜻을 이어 받아 인류 보건에 공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태국 왕실에서 주관했으며, 69개국 대사가 참석했다. 제1회 스리나가리다상 수상자인 김모임 연세대 간호대학 명예교수, 연세대 간호대학 이태희 학장과 이현경 교학부학장이 참석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스리나가리다 여사는 누구인가

스리나가리다 여사는 태국 푸미폰 국왕(재위 1946. 6. 9~2016. 10. 13)의 어머니로 1900년 출생해 9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어려서부터 서양식 교육을 받은 태국의 신여성 1세대 재원이었다. 1916년 시라왕립의과대학 간호학교를 졸업하면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했고, 미국으로 건너가 보스턴 시몬스대학에서 선진 간호를 공부했다. 유학시절 하버드대에서 의학을 전공하던 마히돌 왕자를 만나 결혼했으나 29세 때 남편을 잃었다. 홀로 2남 1녀를 키우며 스위스에서 재내년 중 1935년 장남이 국왕으로 즉위하자 귀국해 모후의 자리에 올랐다. 장남이 사망한 후 차남 푸미폰이 왕위를 계승해 존경받는 국왕의 자리를 지켰으며,

차유태 간호사 헌혈 100회 ‘명예장’ 받아

차유태 국립법무병원(법무부 치료감호소) 간호사가 헌혈 10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명예장’을 받았다. 차유태 간호사는 그동안 매월 한 번꼴로 헌혈에 참여해왔으며, 지난 11월 27일 헌혈 100회를 달성한 후 명예장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의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다. 대한적십자사는 송고한 인류에를 발휘해 헌신적으로 헌혈사업에 기여한 사람에게 ‘헌혈유공장’을 수여하고 있다. 헌혈 횟수를 기준으로 포상하며, 100회 이상 헌혈을 한 경우 명예장이 주어진다. 차유태 간호사는 “헌혈은 생명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며,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건강한 혈액을 기증하기 위해 평소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창한 포부를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 횟수가 쌓이고, 저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헌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사명감이 생겼다”면서 “대단한 일을 해내다며 항상 격려해주신 수간호사님과 동료간호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이혜옥 건양대병원 간호부장 ‘치유의 숲’ 개인전

이혜옥 건양대병원 간호부장이 세 번째 개인전을 ‘치유의 숲(Healing Forest)’ 주제로 대전예술가의집 전시실1에서 12월 26~31일 개최한다. 병원 환자에 핀 꽃, 사무실 창문을 통해 본 숲의 전경 등 일상에서 느낀 자연의 아름다움과 치유의 느낌을 화폭에 담았다. 이번 개인전에는 20여점의 그림이 전시된다. 앞서 첫 번째(2015년), 두 번째(2016년) 개인전을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조형갤러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혜옥 간호부장은 “인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그림에 담아내려고 한다”면서 “감상한 분들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줄 때 가장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일을 하면서 틈틈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려운 작



업이지만 매년 개인전을 개최하는 것은 열정과 도전정신을 유지하는 방법이며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혜옥 간호부장은 안산대를 졸업했으며, 이화여대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노인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병원상처장 루실금간호사회장, 아시아·태평양 상처장루실금간호학회장을 지냈다. 올해 2월부터 건양대병원 간호부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현재 세계장루실금간호학회(WCET) 한국 대표, 건양대 간호대학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최수정 기자 sjchoi@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RNcard 사용백서. 매년 대한간호협회 관련 결계가 10만원 이상이면 2만원이 캐시백 됩니다! www.nurselife.or.kr

간호학을 전문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다!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